

격변과 호흡해온 금세기 경제학의 이정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⑧ 외국경제학편

홍훈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판저널》은 신년호(제248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뽑은 20세기 고전 130선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제251호(99년 2월 5일자)에는 그 첫편으로 한국문학을 실은 데 이어 한국철학(제252호), 한국사회과학(제253호), 외국 고전 가운데 외국문학(제255호)·외국 철학(제256호)·외국역사/인류학(제257호)·외국사회학(제258호)을 소개했다. 이번 호는 외국경제학편을 실는다.

전세계와 한반도는 지난 백년 동안 그 이전의 천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회와 경제의 측면에서 이 점은 더욱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본주의 경제가 전대미문의 대공황을 겪었으며, 사회주의 등 여러가지 사회 및 경제체제와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시험되었거나 시험에 들어 있다. 더구나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은 과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화였다. 우리나라로 보아도 20세기는 개항, 한일합병, 해방, 6·25 전쟁, 독재정권과 경제성장, IMF관리체제 등 숨겨진 변화의 시기였다. 세기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변화는 그치지 않아 모든 것을 '경제'로 용해시키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와 한국을 휩쓸고 있다.

20세기의 경제학은 대체로 이런 격변과 호흡을 함께 해왔다. 그렇지만 경제학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학문의 전문화와 분업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거대한 이론을 제시한다기보다 좁은 분야를 파고들어 과학성을 증대하는데 치중했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경제학이

사회과학에 속하면서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해온 이중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 경제학 고전들은 고전적 가치를 갖는 전반적인 책,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금세기 경제학의 이정표를 이루는 책들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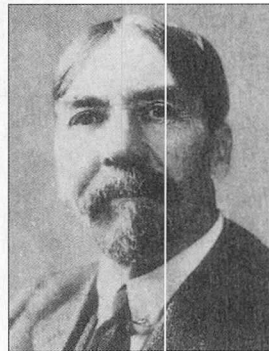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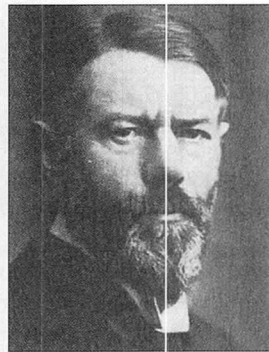
여전히 현재성 지니는 케인즈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으로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들 수 있다. 케인즈는 영국이 낳은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그는 1929년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에서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적절한 개입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를 주창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어 투자 및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의 금융정책, 그리고 특히 재정정책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대량실업을 모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은 마르크스와 같은 과격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이론에 나름대로 수용됐고, 그 이후 40여년 동안 지배적인 논리로 작용했다. 그의 이론은 70년대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해 그 의의가 다소 위축됐다. 하지만 현재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힐퍼딩은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데 《금융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금융현상으로 확대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현 시점에서 그의

저작도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 있어 금융부문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금융 흐름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케인즈



윗줄 왼쪽부터 케인즈 · 슈페터 · 베버 · 프리드먼 · 베블렌.

의 《일반이론》과 병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20세기 초에 활동한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다. 그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는 주저인 《경제와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유품론에 대안이 되는 사회경제적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베버는 자본주의를 종교나 문화와 연관시켜 아시아적 자본주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에 관한 향후 논의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블렌은 《근대 문명에서 과학의 위치》 등을 통해 경제의 운행에 있어서 시장 외에 갖가지 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류 경제학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그의 이같은 생각은 최근 들어 시장경제로 이행 중인 사회주의 경제나 경제위기로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후진국 경제에서 그 의미를 되찾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론가들

슈페터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한 경제학자인데, 학문적인 깊이와 너비를 두루 갖춘 전형적인 대륙형 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슈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자본주의가 서서히 낙후될 것이라는 점을 예언한

다. 그의 예언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의 논의를 통해 기업가의 역할이나 기술혁신의 중요성 등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와 경제적 질서》나 《자유헌정론》 등을 통해 케인즈와는 달리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계의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인이지만 일찍부터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일생동안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경제·사회이론을 개발했다. 사회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의 가격을 대신해 줄 만한 제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는 물론이고 케인즈적인 자본주의 경제도 결국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의 이런 예상은 사실상 90년대 초의 사회주의 붕괴로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록 시장적인 질서를 절대시할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하이에크는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거인이다.

< 20세기 외국경제학 분야의 고전 >

국적	지은이	책이름	발간년도
오스트리아	루돌프 힐퍼딩	금융자본론	1910
	조셀 슈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94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개인주의와 경제적 질서 자유헌정론	1949 1960
미국	베블렌	근대 문명에서 과학의 위치	1919
	폴 사무엘슨	경제학	1948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1962
독일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1922
영국	존 메이nard 케인즈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1936
	A. 센	윤리학과 경제학	1987

'피와 살이 있는' 중세의 지식인상

자크 르 고프 《중세의 지식인들》을 읽고

유희수 · 고려대 서양사학과 교수

20세기 후반 들어 학문의 주축이 상당 부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점은 경제학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 경제학의 대표자로 우선 사무엘슨을 들 수 있다. 사무엘슨은 주류 경제학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로 꼽히는데,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케인즈적인 개입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소위 케이지언이다. 사무엘슨은 《경제학》을 통해 시장경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판을 거듭하면서 금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거대한 시각을 제시하기보다는 작은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앞선 책들과 같은 차원의 고전이라 부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20세기 중반에 경제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변동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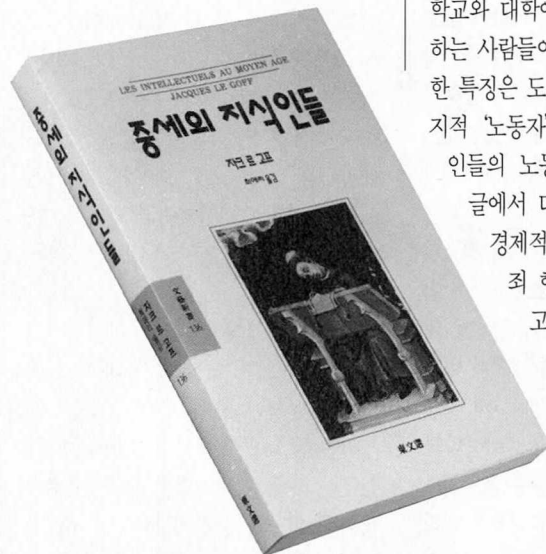
하이에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이다. 프리드먼은 그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개인의 선택상 자유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내세워 자본주의 이념을 손쉽게 풀이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사회주의보다는 주로 케인즈주의를 겨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철학적인 기초보다는 구체적인 이론 및 실천사례를 통해 시장원리의 강점을 부여하려 노력했다.

이들과 달리 영국적인 배경에서 학문을 쌓아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자부하고 있는 션은 《윤리학과 경제학》 등에서 기존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인간관과 효율성 일변도의 경제활동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각 개인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공준을 비판하면서, '느끼고 즐기는' 인간이 아니라 '사고하고 행위하는' 인간형을 제시한다. 또한 고래로부터 존재해온 평등성에 관해 재해석하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평등성을 고려하는 자유주의를 주창한다. 이 책은 인류를 경제적 동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

지난 1월 1일로 75회 생일을 맞은 자크 르 고프에게 그의 제자와 동료들이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국내의 학계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 작년 말에 증정한 책 제목이 《대식가적인 역사가》이다. '대식가' (大食家), 이것은 물론 르 고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다.

그는 과거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씹어 소화하고 변화시키는 데 탁월하며, 이렇게 소화된 지적 자양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함께 즐기길 좋아한다. 이러한 지적 능력과 인간적 매력은 그의 강의의 인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의 세미나는 젊은 학생은 물론이려니와 할아버지와 특히 할머니들(퇴임한 뒤세의 교사들)로 향시 만원을 이룬다.

그가 30대 초반에 쓴,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중세의 지식인들》(1957년)은 나중에 노동·시간·공간·꿈·저승·상상세계 등 문화사로 관심을 확대하기 이전의 전사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최애리 옮김). 중세는 뭔가 침침하고 음산하고 뒤쳐져 있다는 분위기를 연상시키며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시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낯설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르 고프는 이처럼 낯선 중세에 우리들을 길들여준다. 그가 부여잡은 중세인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간, 그러니까 '피와 살이 있는'



자크 르 고프는 탁월한

지적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가

30대 초반에 쓴 이 책은

중세의 원가 음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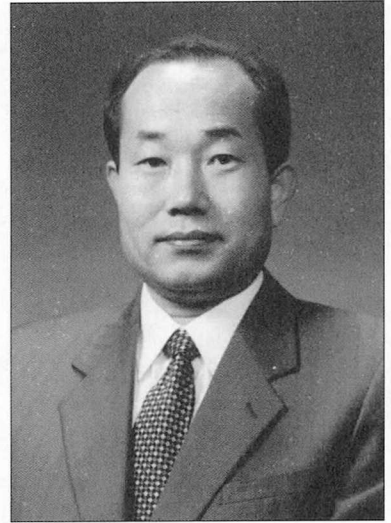
뒤쳐져 있는, 시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낯선 세계를

우리에게 길들여준다. 구체적인

중세인,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세인과 만나게 해준다.



유희수 교수.

구체적인 인간이다.

스콜라 철학은 신학의 시녀고 난해하다는 것만 흔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소개하는 스콜라적 학문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콜라적 학문방법이란, 단순화해 말하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원전의 독해와 주해, 이에 대한 질문과 논쟁, 교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열린 강의와 토론식 수업방식을 말한다. 이런 수업방식은 대개 교수들이 일방통행식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는 오늘날 우리의 대학 현실에 거울이 될 만하다.

중세의 전형적인 지식인은 12~13세기 도시의 발흥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도시 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시의 다른 노동자와 경쟁하는 지적 '노동자'였다는 점에 있다. 이들 지식인들의 노동은, 르 고프가 나중에 다른 글에서 더 상세히 지적했듯이, 노동을 경제적 가치보다는 원죄에 대한 속죄 행위라는 도덕적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비천하게만 여겼던 전통적 노동개념을 복원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식을 팔아 보수를 받는 '말의 장사꾼들'인 이들 지식인이

하느님의 독점물인 학문을 팔아서 안된다는 전통적인 지식 개념을 여지없이 뒤엎었다는 그의 해석은 매우 참신하다.

12~13세기의 지식인은 '유기적' 지식인이다. 그것은 대중과 함께 하는 지식인이다. 반면에 14~15세기의 인문주의적 지식인은 노동하는 대중과는 괴리된 채 세습 귀족화해 권력에 봉사하는 '전통적' 지식인이다. 항상 많은 학생과 독자에 둘러싸여 있는 르 고프 자신이 그러하듯이, "중세의 지식인은 교수로서, 청중이 쇠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인문주의자는 고독한 지식인으로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 있다." ❖

동문선/A5신/330면/18,000원